GCI Korea 뉴스매거진
더스토리북
12월
2022 / 1-3호

COVER STORY

문화적 지성을 향하여

가을학기 "문화적 지성으로 이끌기" 학습을 마치며

정민영 선교사
전 Wycliffe Global Alliance 부대표
GCI 사역역량 프로그램 Advisor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습공동체 여정에 내년 가을학기부터 어드바이저로 동행하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집단학습을 통한 시너지와 교제를 생각할 때 가슴이 뛰지만, 부족한 제가 무슨 가치를 보탤 수 있겠나 싶어 걱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보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공동체적 순례여정(잠 27:17)을 기대합니다.

전인적 문화적 지성

'문화적 지성'은 요즘 많이 생각하는 화두입니다. 두 단어의 조합이 떠올리는 몇몇 단상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마크 놀(Mark A. Noll)이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그의 책 제목이기도 하지요)은 복음주의에 딱히 지성이라 할만한 게 없는 것이라고 꼬집은 비판이 생각납니다. 신앙을 지성으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주지주의에 식상한 나머지 지성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지정의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일이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이 함께 학습하는 이유입니다.

문화는 인간이 처한 상황, 시대, 사회, 삶 전체를 묶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의도가 소위 '문화명령'(창 1:26-28)에 나타납니다. '선교명령'에 우선되는 원초적 개념이 문화명령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창조세계를 운영하도록 계획하신 것인데, 죄와 타락으로 그 일이 불가능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회복, 특히 상실된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현현이신 그리스도(골 1:15)를 닮은 공동체(교회)가 우주적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인데, 문화적 지성의 필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창조세계에 각인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통하기 위해,
함께 손잡고 '문화적 지성'의 여정을
꾸준히 걸어가 봅시다.

정민영 선교사

신학과 인문학의 갈등에서

문제는 인문학(문화)과 신학이 결별한 근현대적 현실입니다. 강압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에 식상한 인문학이 신학을 버리고, 무신론적 계몽주의에 놀란 신학이 인문학을 버림으로써 피차 엄청난 피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전술한대로, 문화명령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올바른 선교명령의 이해 및 실천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포함하여 지난 2천 년간 반복 재생산된,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 흑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한편, 신학을 떠난 인문학의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제대로 된 인간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더듬어 찾는 신학의 추구와 인간 이해를 향한 인문학의 추구는 별개의 학문영역이 아니라 통전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신성(divinity)이 인성(humanity)으로 번역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학문의 절정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갈라놓고 그분의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분리하는 것은 이원론적 이단사설의 출발점입니다.

온전한 문화적 지성을 향하여

성경은 창조세계에 풍부하게 각인된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5세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께서 먹물로 쓰시기보다 먼저 창조세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말하고,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적 은총과 자연이 분리되지 않음을 가르치며, '기독교강요'를 통해 신학과 인문학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개혁자 칼뱅이 제네바에서 두 학문을 아우르는 통전적 교육을 추구한 것, 우리시대의 신학자 존 스토트가 성경과 문화의 '이중 경청 double listening'을 주문한 것이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창조세계에 각인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통하기 위해, 함께 손잡고 '문화적 지성'의 여정을 꾸준히 걸어가 봅시다. 샬롬!

OUR STORY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가 담아낸 우리들의 이야기!

한국희 목사 (아현성결교회)

서울 충정로역 길어귀, 109년전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희 목사님이 사역하는 아현성결교회 입니다. 역사 깊은 교회에서 한국희 목사님은 청년 사역과 학감으로 섬기며 신촌 지역을 넘어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 청년들을 품고 양육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타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도 고든콘웰 GCI 프로그램을 선택할 만큼 본 프로그램과 DMin 과정을 향한 큰 기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국희 목사님께서 바쁜 청년 사역 중에도 학업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국희 목사 (코호트A)

김세중 목사 (코호트B)

김세중 목사 (뉴저지 복음으로사는교회)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가을이 물들어가던 11월,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 김세중 목사님께서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캠퍼스를 찾아 주셨습니다. Great Hall에서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개척 11년된 교회의 이름처럼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는 복음으로 기쁘게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GCI 첫 학기를 통해 컨텍스트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그는 성도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좋아하고 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도 나눠 주었습니다. 해외 학습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하여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GCI 알림

겨울학기 안내

장르별 강해설교

지도 교수: Jeffrey Arthurs

학기 기간: 2022.12.01 - 2023.02.28

12월 1일부터 겨울학기가 시작됩니다. 곧 **겨울학기 플랫폼 초청 이메일을 확인**하시고 기존 회원정보로 로그인 후 겨울학기 자기주도학습을 시작해 주세요.

12월 5일 겨울학기 **코호트 오프라인 멘토링 만남**에 모두 참석하셔서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갖으세요.

겨울학기 대면공동학습

- **어드바이저:** 조정민 목사 (베이직교회 담임)
- **일정:** 2023년 1월 30일(월) – 31일(화)
- **장소:** 진새골 사랑의집 (jinsegol.org)

GCI 기도

1. 장르에 민감한 강해 설교의 역량을 개발하는 가을 학기가 되게 하소서.
2. 매주 레슨별 개인성찰과 공동성찰을 통해 설교사역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통찰을 나누게 하소서.
3. 사역 중에도 학업이 뒤쳐지지 않게 하시고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4. GCI 사역역량 프로그램 구성원 모두가 2022년 한 해를 은혜와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www.GCI-Korea.org
gcikorea@gordonconwell.edu
GORDON-CONWELL INSTITUTE

사역역량 프로그램 목회학 석사(M.Div.) 학위자가 본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고든콘웰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D.Min.) 학위과정 2년차로 편입이 가능합니다.